

전남 지자체 관광객 유치 “코레일을 잡아라”

보성 여행객 버스 27차례 보다 기차 한번이 더 많아
광양·순천·곡성 등 여행상품 개발 코레일과 업무협약

전남 지자체가 기차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코레일을 통한 전국적 홍보 뿐 아니라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루 관광객이 3개월 버스 관광보다 많아=보성군은 최근 코레일 전남본부와 ‘보성군 철도관광객 유치사업’ 협약을 맺고 관광객 모집에 뛰어들었다. 기존 버스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 유입 효과가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다.

보성군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6차례 버스를 이용한 관광상품을 만들었지만 고차 356명만 이용하는 ‘초라한’ 결과를 가져왔다. 올 상반기에도 4~6월 27차례 버스를 통한 관광객 유치가 나섰지만 정차 보성을 찾은 여행객은 152명 이 전부였다.

기차를 타고 순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버스로 불러들여 보성을 찾도록 하는 새로운 여행객 모집 전략을 세운 이유다.

협약에 따라 코레일은 보성을 둘러보는 여행상품을 만들어 관광객을 모집하고 보성은 순천역~보성 간 시티투어 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첫 여행객 모집은 성과를 냈다.

당장, 지난 9월 13일 첫 당일치기 여행객 218명이 순천역에서 보성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녹차밭과 판소리 성지를 돌아봤다. 하루 여행객이 봄철 3개월 간 여행객보다 많은 것이다. 지역의 관광자원과 철도를 결합시킨 여행 트렌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관광지 접근성이 좋아지고 철도와 연계된 콘텐츠가 가미되면서 상품성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보성은 당일 여행상품 외에 1박 이상의 숙박 가능한 여행상품도 코레일에 요청,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양·순천·곡성도 잇따라=다른 지자체들도 코레일과 손을 잡고 나섰다. 광양시는 오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코레일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광양시는 협약을 계기로 ‘선샤인(sunshine) 5S-트레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관광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선샤인은 광양을 상징하며 5S는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관광열차인 남도해양관광열차(S-트레인), 광양지역의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특수목적관광(Special interest tour), 만족할만한 콘텐츠(Satisfy contents)의 약자다. 코레일은 광양 관광영역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만들어 관광객을 모집하고 광양시는 순천역에서 광양 관광지와 연계한 버스 임차료·숙박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광양시는 협약이 체결되면 9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3500명 이상이 광양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도 기차로 곡성역까지 왔다가 관광택시를 타고 곡성을 둘러보는 여행상품을 만들어 관광객을 모집중이다.

군은 코레일관광개발과 공동으로 남도 해양관광열차와 곡성관광택시를 연계한 여행상품인 이른바 ‘광택열차’를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여행객들을 겨냥한 상품으로 서울역에서 S-Train을 이용, 곡성역에 도착한 뒤 곡성관광택시를 타고 지역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둘러볼 수 있도록 마련한 상품이다.

시티투어 버스 대신, 건너나 대중교통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광지를 관광택시로 구석구석 즐길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곡성군은 전문적인 문화관광교육 등을



곡성을 구석구석 알려주는 구수한 입담의 관광택시기사들이 포즈를 취했다. <곡성군 제공>



순천시는 코레일과 협약을 맺고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순천시 제공>

받은 10명의 택시기사들의 구수한 입담과 주민들만 아는 숨겨놓은 장소를 찾아가는 재미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도 비슷한 여행상품을 지난해부터 ‘에코열차’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는 올해 7월까지 순천에서 하루 이상 머무른 관광객들에게 지원한 경비를 감안, 7875명이 순천을 찾은 것으로 파악하

고 있다. 여수도 2억3000만원을 들여 철도관광상품을 이용, 여수를 방문한 여행객들의 숙박비와 버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광양=김대수기자 kds@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구례 문척면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4년간 60억 투입...농림부 ‘농산어촌사업’ 선정

구례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한 결과, 문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구례군은 내년부터 4년간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척면 일대에 활력센터를 세우고 체육공원 및 지역경관 개선 등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농촌 마을 주요 정주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이끌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쇠퇴한 농촌 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쪽빛 다도해 감상하며 팔영산 등산 천문우주과학관서 가을 별자리 관측

고흥군 가을여행 명소 소개

나들이하기에 딱 좋은 시기, 어디로 갈까. 고흥군이 고민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가을을 가을답게 즐길 수 있는’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고 나섰다.

첫손에 꼽는 고흥 명소는 팔영산(606.8m). 팔영산은 여덟 개의 봉우리를 오르내리는 코스로, 역동적인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게 매력적이다. 능선을 따라 한쪽은 쪽빛 바다와 점점이 떠 있는 섬을, 다른 쪽으로는 가을빛이 물들어가는 산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팔백숲은 목구멍을 간질거리고 코끝에 살랑이는 청량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흐흠’하고 깊이 들이켜 조금이라도 더 몸 속에 담아가고 싶은 욕심이 솟아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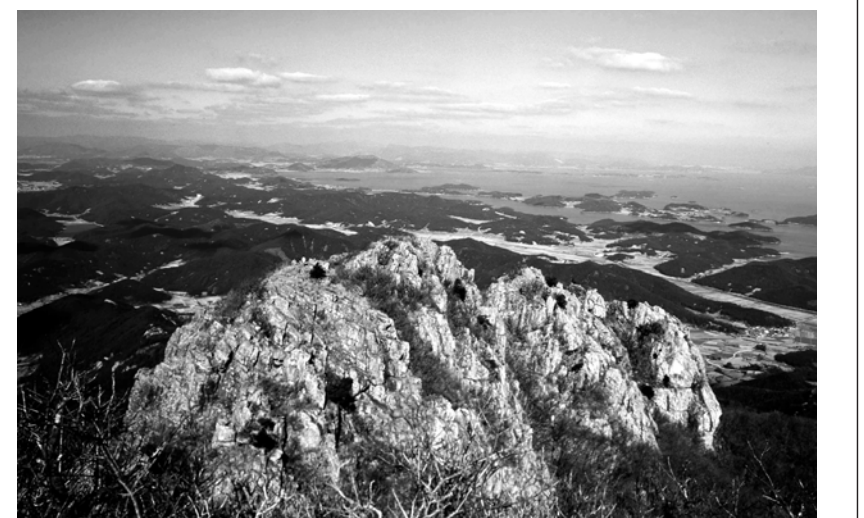
산 아래쪽 신라 놀이장(419)때 세워진 능가사의 가을 풍광도 빼놓을 수 없다.

고흥천문우주과학관도 둘러볼 명소다.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체험·실습도 다양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 어낼만 하다. 오후 2시부터 문을 열어 태양과 흑점을 관측할 수 있다. 가을철 별자리, 한가위 보름달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야외전망대는 주변 녹동항과 소록대교, 거금대교의 풍광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게 고흥군 설명이다.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을 위한 장소로 해장만 오토크캠핑장도 머물만한 추천지다. 오토크캠핑장(21면), 캠핑장(27면), 글램핑장(14동) 등으로 다양해 취향에 맞게 이용할 수 있고 캠핑장 주변으로 조류지가 조성돼 섬 안에서 캠핑하는 듯하다. 고흥군은 다음달 21일 캠핑장 일대에서 캠핑페스티벌을 연다.

고흥군 관계자는 “가을철 여행 테마인 산과 별, 캠핑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고흥”이라며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고흥천문우주과학관도 둘러볼 명



고흥 영남팔영산 전경. <고흥군 제공>



내달 20일부터 3일간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판소리·고수 분야 경연

판소리의 본향 보성에서 서편제소리축제가 열린다.

보성군은 오는 10월 20일부터 3일간 보성다문화체육관과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에서 ‘제 20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를 연다.

보성군은 판소리의 본향으로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선생과 보성소리를 정립한 정응민 선생, 조상현, 성창순 등 많은 명창을 배출한 판소리 명창의 산실이며, 국악발

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우리 소리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격조 있는 문화행사와 민중의 삶과 애환이 서린 판소리를 바탕으로 예술축제 형태로 치러진다.

첫날인 20일에는 판소리 성지에서 서편제의 비조인 박유전 선생 추모행사가 열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전통타악 아자의 ‘장구 FREE!’ 공연 등이 펼쳐진다.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전년도 대상 수상

자와 뉴욕국악협회 초청공연,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 올댓코리아 소리길 공연, 역대 대상 수상자 초청 공연 등이 잇따른다.

판소리 한 대목 배우기, 추임새 경연대회 등 체험행사도 곁들여진다.

한편, 경연대회는 판소리와 고수분야로 나눠 명창·명고부와 대학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등으로 열리며,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환,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